

특허법원 대전유치를 위한 건의안

의안 번호	8
----------	---

제안일자 : 1995년 10월 17일

제안자 : 김동근의원외 1인

1. 주 문

- 정부의 지방화 · 분권화 정책에 따라 대전둔산지역에 제3행정타운 건설공사가 마무리되는 '97년말경부터 특허행정을 담당하는 특허청이 가장 먼저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 현재 특허법원의 신설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로 되어 있는 바 특허행정과는 상호 밀접한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전지역으로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건의유치코자 함.

2. 제안이유

- '70년대이후 정부는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덕연구단지에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단체등을 신설하거나 이전시켜왔음.
- 최근에는 세계과학기술을 전시하는 행사로서 대전엑스포 개최와 정부의 지방화 · 분권화 정책에 따라 대전 둔산지역에 제3행정타운 건설을 위한 공사와 더불어 '97년말경에는 특허행정을 담당할 특허청이 가장먼저 이전토록 계획되었음.
- 다가오는 21세기는 무한대의 기술전쟁 시대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기술전쟁은 곧 국가간 치열한 특허전쟁의 모습을 띌것으로 예측되며,
- 따라서 기술전쟁 특허전쟁 시대가 될 21세기를 대비하고,특허행정과 특허소송을 담당할 양기관은 상호밀접한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민원인의 편익도모, 그리고 양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일지역인 대전에 특허법원을 신설하여야 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함.

特許法院 大田誘致를 위한 建議案

特許法院은 지난해 法院 組織法과 特許法の 改正에 따라 오는 '98年 3월 1일부터 司法部에 高等법원급 專門法院으로 新設 運營되는 것으로 關係 技術學界와 産業界에서는 우리나라 科學技術 發展을 위한 획기적인 快舉로 認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特許法院은 科學技術紛爭을 迅速 正確하게 處理하여 우리의 기술력 향상에 寄與토록 設置되는 것인만큼 相互 密接한 業務의 연계성이 있는 特許廳과 同一地域에 位置함이 보다 效果的임을 여러 先進國의 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는 98년초 特許廳이 移轉할 계획으로 있는 大田으로의 特許法院 設置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으며, 이곳 大德研究團地의 優秀한 科學頭腦들과의 교류등으로 最大의 立地效果를 거둘 수 있어 名實相符한 科學技術・특허타운으로 發展할 것은 자명하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最近 一部 法曹人과 辨理士들이 新設 特許法院의 位置가 「各級 法院의 設置와 管轄 地域에 관한 法律」로 서울특별시에 두게 되어 있음을 惡用하여 政府가 기결정한 特許廳의 大田 移轉은 물론 特許法院의 大田誘致까지 反對하는 등 輿論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處事는 國民에게 최적의 司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公人으로서의 本分을 망각한 행동일뿐만 아니라 地域의 均衡發展을 위해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다가오는 21세기는 無限競爭時代로서 科學技術이 各國의 國家競爭力을 좌우할 것이 分明하기 때문에 이러한 科學技術의 경쟁은 곧 國家間 치열한 特許戰爭의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大田廣域市議會는 이러한 타당성을 바탕으로 國內 科學技術界와 產業界 그리고 市民들의 要請을 받아들여 國家全體의 立場에서 特許法院의 大田 誘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6명 全 議員의 뜻으로 다음 事項을 建議案으로 採擇하고, 關係部處와 有關機關에 이의 對策을 강력히 促求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特許法院의 位置를 國民에게 良質의 사법서비스를 提供한다는 次元과, 國家政策全體의 合理性和 효율성을 찾는 方向에서 決定하길 促求한다.

때문에 서울의 人口 集中 分散과 제2행정수도로의 育成方針등 政府政策의 當爲性和 一貫性에도 맞지 않는 特許法院의 位置가 서울이 아닌 大田으로 變更될 수 있도록 關係法の의 迅速한 改正을 促求한다.

둘째, 시당국은 特許法院 大田誘致의 절박성을 認識하고 各界 人士와 市民들로 汎市民 誘致 推進委員會를 構成하여 汎市民 運動 次元의 유치캠페인과 公청회를 開催하는등 市民의 역량을 結집하는데 特단의 對策樹立을 促求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市議會는 特許法院 大田誘致를 위한 125萬 市民들의 努力이 結實을 거둘 수 있도록 市民의 代表機關으로서 對策講究를 促求하고 政府와 시당국의 積極的이고 誠意있는 對策樹立을 期待합니다.

1995. 10. 18.

大田廣域市議會 議員 一同

《 건 의 기 관 》

- 청 와 대 (비서실장)
- 국 회 의 장
- 국회법사위원장
- 대 법 원 장
- 법원 행정처장
- 법무부장관
- 대전광역시장

- 민자당 대표
- 자민련 총재
- 국민회의 총재
- 민주당 공동 대표

- 남재두 국회의원
- 송천영 국회의원
- 강창희 국회의원
- 이재환 국회의원
- 김원웅 국회의원